

京繡



起源可追溯至平安遷都、縫部司遷至平安京之時期。京繡活用於貴族的繡衣繡佛、武器等而得以發展。於絲綢及麻的織物上用絲綢線金線或銀線刺繡、約有 15 種以上的技法、為平安時代流傳至今的手工傳統工藝之結晶。

平安遷都 794

製作：京都市

京绣



据说起源可追溯至平安迁都时期、缝部司迁移至平安京的时候。多用于贵族的刺绣服装、刺绣佛画、武器等而得到发展。在绢或麻的纺织物上使用绢丝、金丝、银丝等刺绣、其工艺多达 15 种以上、是平安时代技法传承至今的手工艺的结晶。

平安迁都 794

制作：京都市

교누이 (자수 무늬)



그 기원은 헤이안시대에 헤이안쿄로 천도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직물과 염색을 관장하던 관청이 헤이안으로 도읍을 이전했을 때부터 알려져 있다. 귀족의 슈이 (자수로 장식한 의복), 슈부쓰, 투구와 갑옷 등에 이용되며 발전했다. 견직이나 마직에 견실, 금실, 은실 등을 이용한 자수는 15종 이상에 이르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헤이안 시대의 기법을 현대에 전수하는 수작업의 결정이다.

헤이안 천도 794

교토시 제작

Kyo-nui (Embroidery)



The origins are said to be from when *nuibe-no-tsukasa*, (the wardrobe office) transferred to Kyoto back when the capital of Japan was moved to Kyoto. It was used in the clothing and military implements of the nobility. Over 15 techniques are used in which silk, gold, and silver threads are embroidered upon textiles of silk and linen, and it is an example of skillful handwork bringing techniques of the Heian period into the present day.

the movement of the imperial capital to Heian-kyo 794

Produced by City of Kyoto